

오염수 처리 및 방류 관련

- 브리핑 :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-

< 1. 인사말씀 >

- 안녕하세요.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.
- 어제 브리핑 이후에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습니다.
 - 여러 언론이 주신 이런 의견에 대해, 몇 가지만 확실히 짚고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고자 합니다.
 - 어제 또 거듭 말씀드렸듯이, 우리 정부가 브리핑을 시작한 목적은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림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. 이런 목적에서라면,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 -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,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 검토와 함께,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오염수 처리에 임할 것을 계속 요구할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.

< 2. ALPS 고장 관련 언론 보도 >

- “도쿄전력의 고장 사례를 받아본 결과 ALPS가 '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고장났다”
- 먼저,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ALPS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 - 지난 14일 ‘정부가 확보한 도쿄전력의 고장 사례를 받아본 결과, ALPS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고장났다’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
- 우리 시찰단은 지난 5월 시찰 과정에서 ALPS 주요 고장사례 목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
 - 우리 정부는 이 자료로부터, ‘13년부터 '22년까지 설비 부식, 전처리설비 필터 문제, 배기필터 문제 등, 총 8건의 ALPS 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
 - KINS 검토팀은 시찰단이 확보한 고장사례 자료를 상세히 분석 중이며, 추가 확보한 정기점검항목, 설비 유지 관리계획 등도 검토해 ALPS의 장기 운영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
- 이어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해 해수부 차관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차관 송상근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6월 16일 기준,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지난 6월 9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수산물 생산단체 방사능 검사 결과입니다.

○ 한 주간 실시된 생산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4개 품목 137건이었습니다. 검사 결과는 전부 적합이었습니다.

○ 검사 실시 상위 5개 품목은 멸치 21건, 멍게 10건, 다시마 9건, 고등어 6건, 오징어 5건 등이었습니다.

□ 또한 유통단체에서도 지난 2주간 229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고, 검사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□ 이번 주 선정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입니다.

- 지난주 신청 건수는 9건이었고, 이중 중복 1건을 포함 8건이 방사능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- 해당 품목은 부산의 강도다리, 전남의 멸치, 뱀장어, 바지락, 톳, 경남의 가리비, 갑오징어, 강원도의 가리비입니다.
- 선정된 품목은 지역별로 시료를 확보하는 대로 검사를 진행하여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
□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
- 현재, 항만에서 1시간 이내 방사능 농도 분석이 가능한 이동형 측정 장비를 부산, 인천 등 권역별로 6대 배치 하였고, 5월 22일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현*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* (현재) 후쿠시마현, 미야기현, 아오모리현, 이와테현, 이바라기현, 치바현

- 5.22일 이후 조사된 14척의 선박평형수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
□ 해역 검사에 관한 현황입니다.

- 6월에는 29개 주요 정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, 지난 6월 12일부로 전국 연안 29개 주요 정점에서 6월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.
- 6월 15일 기준, 52개 정점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결과, 세슘, 삼중수소, 스트론튬 등의 해수중 농도는 모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의 농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.
- 현재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인 잔여 시료의 방사능 농도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.

□ 다음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입니다.

-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중이며
- 8개현 이외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오염 대표핵종이자 위해도가 높은 세슘 134, 137, 요오드 131을 우선적으로 검사해 미량(0.5Bq/kg)이라도 검출되면 삼중수소 등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매 수입시마다 일본정부의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여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

- 수입검사 시 적용되는 방사성 세슘기준은 100베크렐 (Bq/kg)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정하는 1,000베크렐 보다 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,
- 모든 검사결과는 “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”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방사능 검사를 통과하여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여 해당 수산물의 유통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가리비·돔 등 21개 품목의 수입·유통·소매단계 이력을 관리 중이며, 이를 기반으로 해당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5~6월 두 달간은 해경·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고, 곧이어 2차 전수 점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문제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, 방사능 검사를 통과하여 수입·유통되는 수산물이 절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< 3. 개별 설명 사항 >

□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이슈

□ 오늘 설명드린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,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,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도 해제될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의견이 많습니다.

□ 하지만,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

○ 오염수 방류는 방류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으로 도달했을 때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한가에 관한 문제이고,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문제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
○ 다시 말해서 만일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

-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있었음을 일본 정부는 2013년 7월 인정하였고,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안전 조치로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하였습니다.
-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우리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.
- 정부는 수 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, “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”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-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,
-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, 절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습니다.
-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.

② 국민신청방사능 게시판 검사 이슈

- 어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,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
- 앞서 해당 게시판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과 생산지역을 신청하시면, 이 중 신청 건수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
- 4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총 7주간 신청을 받았고, 주간 신청 건수는 최소 9건, 최대 41건이었습니다.
- 물론,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,
-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,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 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단체 방사능 검사 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.

- 이에 더해, 만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여, 검사장비 부족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-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수산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,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,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국민 신청 방사능 게시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③ 현장 설명회 일정

- 해양수산부는 현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민들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
- 현재 각 권역별로 순회하며 ‘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’를 개최하고 있으며, 어업 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어촌계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도 개최합니다.
- 6월 말까지 20회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- 지금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어업인과 생산자단체, 유통·가공 업체분들은 우리 수산물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입니다.

- 먼저 이분들이 우리 수산물 안전에 확신을 가져야만, 시장과 마트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심이 꺾어나갈 수 있습니다.
-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.
- 또한 정부는 인터넷 포털과 SNS, 옥외 전광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도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습니다.
- 이상입니다.